

무주군, 먹거리 발굴 '최선'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 토론회... "무주다운 관광음식 승부해야" 한 목소리

무주군이 식품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무주군 먹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먹거리 대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짰다.

지난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주군 먹거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무주군의 음식관련 정책을 비롯해 국내외 음식관광 사례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향토음식을 매개체로 먹거리 발굴로 무주군의 음식이 국민들의 여행 목적지가 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컨셉과 브랜드 개발로 무주다운 관광음식으로 승부해야 국민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진단했다.

먹거리 활성화 방안 전문가초청 토론회에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을 비롯해 김중기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 최문식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 이사장, 채상원 군산 먹거리통합센터장, 장현숙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주군 송금현 부군수를 비롯해 주흥규 기획실장, 각 팀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먹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쏟아냈다.

이들 팀장급 공무원들은 향후 무주군의 먹거리에 관련된 의견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팀장들로 짜여졌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무엇보다 무주군의 특화된 대표 브랜드 음식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지난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주군 먹거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무주군의 음식관련 정책을 비롯해 국내외 음식관광 사례가 제시됐다.

"식당업자와 마을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음식상품 검증단과 음식관광 협의체를 구성해 꾸준히 맛을 보고 음식상품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먼저 대표 음식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중기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는 "무주의 청정 이미지와 맞는 음식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시대에 흐름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무주만의 차별화된 음식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식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 이사장은 "무주에는 많은 특산품이 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표 음식 1~2개를 육성하여 임소문이 나 자연적으로 무주의 대표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채상원 군산먹거리통합센터장은 "무

주 1차 농산물을 가공해 경쟁력을 갖고 소비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학교급식시장, 즉 관계시장문도 두드리면 좋은 소비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문가 토론 가운데 먹거리 개발과 관련 가격의 비현실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장현숙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장은 "먹거리 브랜드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국산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국산 재료 가격이 높아 애로가 많다"고 토론했다.

송금현 부군수는 "무주의 먹거리 활성화 방안에는 따른 부서장 토론회와 읍면장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토론회를 토대로 무주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발굴해 관광자원화해 무주에 오면 무주다운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박종호 산림청장, 산림경영단지 시찰

천마재배 현장 견학 등 의견 나뉘

황인홍 무주군수가 17일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와 은산리, 증산리에 조성될 20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하고 박종호 산림청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황 군수는 "2021년 선도산림경영단지 선정되면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52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1,555ha 규모에 벌채와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신설, 천마 임간재배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홍 군수와 박종호 산림청장은 무풍면 은산리 일대 임간 천마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임야 내 천마 재배상황과 채취 장면을 보고 실제 천마가 임야에서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는가 하면, 천마모형과 천마제품 전시 품목을 둘러봤으며, 천마차를 시음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관계자들은 적삼면 괴목리 산181-8 일대 산에서 산림분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나무 조림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조림지내 덩굴피해 예방을 위해 덩굴제거 등을 실시했으며, 부산물 임내정리 체험과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와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사업계획, 임간 천마재배 현장을 견학하면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됐다"며 "2021년부터 10년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순환경제 모델링으로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형 뉴딜 사업 발굴 모색

군, 전북연구원과 상생발전 간담회

진안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형 뉴딜 사업 발굴을 위한 전북연구원과 상생발전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진안군 전춘성 군수와 전북연구원 김신기 원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미래 선도형 드론실증도시 구축방안 ▲미안산 남부-북부 연계방안 ▲고려홍삼 진안고원 글로벌센터 구축 ▲국립지리과학연구원 연계사업 발굴 ▲진안군 의료원 정상화 지원방안 등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안 해결 및 100대 국정과제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연구원 김신기 원장은 "전북연구원에서는 진안군이 K-뉴딜을 비롯한 동부권사업과 국책사업 발굴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춘성 군수는 "향후 진안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진안형 K-뉴딜사업 발굴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설계 완료

장수군은 장수군 변안면 지리지 무통고개 소재의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25억/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신상품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 기반시설로 관리사, 재배포지, 수확물 가공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1년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군은 임산물 생산 유통 작물로 산마늘, 두릅, 읍나무, 대레 등을 선정하고 재배할 예정이다.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

익성·지역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이 산림신상품을 공동생산·가공·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민섭 과장은 "정부혁신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의 일환으로 산림신상품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해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산림산업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월랑공원 내 국궁장 개관

진안군은 17일 군민의 체육활동 다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월랑공원 내 국궁장을 개관했다.

진안군 국궁장은 국비 4.8억원, 군비 14억원 등 예산 19억원이 투입돼 지어졌으며 7사로 구성, 28명이 동시시력이 가능한 규모이다.

또한 과녁판·고전막사·운시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2층, 연면적 651.28㎡의 본 건물에 휴게실·교육실·다목적실 등 편의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대규모 대회 개최가 가

능하다.

특히 진안국궁협회는 이번 국궁장 개장 전에도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번 국궁장 조성에 따른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궁장이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리복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즐겨 찾는 국궁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미나리 첫 수확 농가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17일 동향면에서 미나리 시범재배에 성공한 농업인 이기흥 씨의 재배 현장을 방문했다.

전 군수는 진안군 지역에서 신 재배작물인 미나리 시범 재배에 성공한 이기흥 씨를 격려하기 위해 재배현장에 방문해 "수박의 대체 작물로서 이 지역의 기후환경에 적합해 연중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나리 재배의 의의와 전망, 가격 동향, 생육상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춘성 군수는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특화 고소득작물인 미나리재배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마령면 작은 목욕탕 개장

진안군 마령면(면장 양수현) 작은 목욕탕이 17일 주민들의 관심 속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진안군의회 의원, 마령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작은목욕탕 개장을 축하했다.

마령면 작은목욕탕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목욕탕이 없어 읍내까지 목욕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숙원사업이었다.

이번 목욕탕 개장으로 면민들에게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은 여자, 화·목요일은 남자가 이용하는 요일 지정제로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노인, 초등학생, 수급자, 장애인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이다.

전춘성 군수는 "작은 목욕탕은 목욕시설이 없는 농촌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면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모라모라 피어나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참여자 공개 모집

무주군이 '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청년정책협의체)' 참여자 20명(4개 분야 각 5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로 청년 정책에 있는 관심이 있는 관내 거주 청년(만 18세~만 49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116 2층 무주군 로컬JOB센터)과 방문, 이메일(mujob@naver.com)로 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무주군 로컬JOB센터(063-322-9297)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063-320-2381)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